

“기적을 불러온 큰 믿음 - 바디매오”

마가복음 10:46-52

오늘 말씀은 소경 거지인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만나 팔자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무렵,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었고,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바디매오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막 10:46)

그는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곧, 그곳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걸하던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막 10:47)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주님을 부릅니다.

바디매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적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50 절 말씀을 보면, 바디매오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겂옷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겂옷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겂옷은 필요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막 10:48)

그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꾸짖으며 억박지르는 상황 자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이미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마 20:30)

영어 성경에는 “Jesus was going by”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을 지나가시고 있던 예수님을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면서 나무라고 있지만, 그는 일생에 단 한번 올까 말까한 소중한 기회가 그냥 지나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분의 이름을 멈추어 세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성경은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니다. ‘부르짖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고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짖은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얌전하게 “건져주세요” 라고 속삭이듯 말할까요? 또 벼랑에 매달린 사람이 정중하게 “저를 좀 건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사람처럼, 마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기적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들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막 10:49-50)

사실 그가 내버렸다고 하는 겹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옷' 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지가 너무 많았기에 정부에서 구걸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오직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들만 구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겹옷이 지급된 것입니다. 즉, 이 겹옷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 공식적으로 구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던 이 겹옷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터전과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매오는 이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깨끗이 내려놓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담대히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불신앙과 불순종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 들고 있지만, 수십년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도 옛날의 옷을 그대로 걸치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로 물든 그 더러운 옷을 이제 그만 벗어 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막 10:51)

예수님께서 하신 첫 질문이,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다면, 그의 대답은 누구나 예상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십니다. 그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의 목표와 꿈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실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매오는 구걸하는 신분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죄로 물든 옛날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바디매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으며, 만약 내가 바디매오의 입장이라면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만약, 지금 이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